

# 氣功文獻學의 方法論에 對한 考察

이동현\*, 김경환\*\*, 맹웅재\*\*\*, 윤종화\*\*\*\*

大韓醫療氣功學會

## I. 緒論

東洋醫學에서는 氣를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로 보고,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景岳全書》<sup>1)</sup>에서는 “人之有生 全賴此氣”라 하였고, 《醫門法律》<sup>2)</sup>에서는 “氣聚則形成 氣散則形亡”이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이라 하였다.

氣라는 말은 대단히 넓은 의미에서 쓰여

지고 있다. 그것은 氣의 개념이 형체는 없고, 작용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氣가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氣功<sup>3)</sup>은 사람이 대자연과 싸워온 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완성시켜온 예방, 치료 및 보건강화와 장수를 목적으로 한 심신 수련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바로 氣를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氣功은 眞氣의 運行을 조절 및 회복시켜서 인체의 자연치유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治病은 물론 健身하고 延年益壽케 하는 효과가 있다.<sup>5)</sup> 사람들은 수 천년 전부터 인간의 생명운동이 갖는 법칙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대자연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생체를 대자연에 적응시켜 각종의 고난, 고통을 극복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엄습해 오는 여러 가지 질환에 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 원광대학교 의사학교실

\*\*·\*\*\*\* 동국대학교 침구학교실

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1985, p.8; 醫書, 64卷, 明代 張介賓이 1624년에 撰함. 全書를 傳忠錄, 脈神章, 傷寒典, 雜證謨, 婦人規, 小兒則, 癩疹論, 痘疹詮, 外科鈐, 本草正, 新方, 古方, 外科方 등으로 나눔, 諸家の 精要를 取擇하여, 辨證論治에 비교적 계통적 분석을 하고, 그의 ‘陽常有餘, 眞陰不足’의 학설과 경험을 충분히 밝힘. 治法은 溫補를 위주로 하고, 新方 2卷을 附載함. 立論과 治法에 독창적인 면이 있음.  
2) 上揭書, p.218; 綜合醫書, 6卷, 清代 喻昌이 1653년에 撰하였음. 본서는 臨床病證을 結合하여 辨證論治의 法則을 正面으로 闡述하고 아울러 일반 醫生들이 變證치료에서 犯하기 쉬운 錯誤를 명확히 指摘하여 禁例로 指示했으므로 書名을 法律이라 했다.

3) 유아사야스오(湯淺泰雄)著 손병규 譯：氣와 人間科學, 서울, 麗江出版社, 1992, p.25; 氣功이라는 말은 新 中國 成立後 唐山에 처음으로 氣功療養所를 建 劉貴診氏가 1954년에 많은 고문헌을 조사하고 종래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던 것을 통일적인 학술용어로 정리한 것이다.

4) 임후성 著, 임준규 譯：중국기공, 서울, 보건신문사, 1987, p.17

5) 氣功外氣療法의 항 스트레스 효과 연구：김기욱,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제2권 제2호, 1994, p.181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또 예방치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단련력 그 자체를 향상시켜 왔던 것이 기공수련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氣功이라는 것은 氣 자체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보편 일률적인 수련 과정이 없고,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서 전수되어지고 있으며, 氣功에 관한 문헌은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산재되어 있어 의학서적, 양생<sup>6)</sup>서적, 불교, 도교서적, 인물의 전기, 문인학자의 수필, 詩, 經, 史, 子 集中에 수록되어 내려져 오고 있으며, 氣功古籍은 전문적인 著作에서부터 氣功내용이 수록된 고적을 모두 포괄하므로 千種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氣功學의 체계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氣功문헌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공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헌적인 자료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前代 사람들의 성과를 연구 종합하고, 이미 도달하였던 수준과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학문이 발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만약 氣功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헌 연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氣功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氣功學의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氣功文獻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氣功文獻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6) 金秉雲 외 : 肝系內科學, 서울, 韓醫學研究院, 1989 p.493 ; 養生이란 人體를 保護하여 生命活動을 健康하게 攝養保存함으로서 健康無病, 延年益壽 乃至 長生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II. 研究方法

1. 기공에 관한 문헌은 중국서적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고, 내용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공고적을 참고로 하여 연구하였다.
2. 기공에 관한 문헌은 기공 전문서적 외에 의학서적, 도가서적, 불교경전, 유교서적에도 역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의 서적에 있는 기공문헌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3. 기공서적의 문헌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4. 기공문헌학에 대한 내용인 목록학, 판본학, 교감학, 훈고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III. 本論 및 考察

氣功은 고대 사람들이 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長生을 목적으로 심신단련의 과정상에 나타난 산물로 문명이 발전할수록 진보되어 왔다. 氣功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氣功수련의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氣功文獻學은 후세에 氣功에 대한 지식을 얻고, 氣功학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氣功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氣功문헌은 광범위하여 인쇄되어 전해지는 것과 인쇄되지 않고 구두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氣功文獻은 그 특징중의 하나가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인쇄되어 전해져

오는 氣功고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醫學書籍, 養生書籍, 불교, 도교서적, 인물의 전기, 문인학자의 수필, 詩, 經, 史, 子 集中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氣功古籍은 전문적인 著作에서부터 氣功내용이 수록된 고적을 모두 포괄하므로 千種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氣功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1) 氣功文獻의 收錄

### (1) 醫學 著書 中の 氣功文獻<sup>7)</sup>

氣功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論해 놓은 서적이 비록 많지는 않으나, 各家의 저작 중에 특히 養生서적들에 적지 않게 산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정리해 놓은 氣功 養生 문헌은 陶弘景의 《養性延命錄》<sup>8)</sup>이며, 그후 馬王堆의 《導引圖》<sup>9)</sup>, 《却穀食氣篇》, 《天下至道談》 등 역시 의학 氣功 문헌으로 볼 수 있다. 隋唐時期的 《諸病源候論》<sup>10)</sup>은 비록 氣功서적은 아니지만 氣功

에 대한 내용이 약간 서술되어 있으며, 曹炳章<sup>11)</sup>이 《巢氏病源保養宣導法》을 편찬하여 후에 氣功學의 전문서적이 되었으며, 임상 氣功學의 기본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孫思邈<sup>12)</sup>의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은 氣功 養生學의 전문서적이며, 당대의 王燾<sup>13)</sup>의 巨作인 《外臺秘要》 또한 풍부한 氣功문헌을 수록하였다. 宋代의 《聖濟總錄》, 《聖濟經》은 모두 방대한 양의 氣功문헌을 수록하였고, 陳直<sup>14)</sup>의 《養老奉親書》, 元代的 醫家인 鄒鉉<sup>15)</sup>이 편찬한 《壽

부하여 일부 傳染病, 寄生蟲病, 婦人科, 小兒科病證, 外科手術 등에 대한 精辟하고 매우 희귀한 論述이 적지 않게 있어서 후세의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음.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등 醫書에 病因, 病理分析의 대부분이 本書에 依據하였음. 현재 影印本이 있음.

- 7) 馬濟人 主編：實用中國氣功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出版發行, 1992, p.555
- 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前揭書, p.153; 養性延命錄: 養生學書, 2卷, 梁代的 陶弘景이 撰함. 撰年은 未詳임. 書中에 道家의 觀點으로 養生의 各種 禁忌事項과 服氣療法, 導引, 按摩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 9) 呂光榮 主編：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52; 기공도인전문서적, 편찬자는 미상. 1973년 湖南長沙市 馬王堆三號漢墓에서 출토됨. 各種의 자세를 하고 있는 導引圖가 있으며 비단 위에 그려짐. 고인의 紅, 蘭, 棕, 黑 네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형태가 각각 다름. 모두 44쪽으로 됨.
- 1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前揭書, p.272; 書名. 諸病源候總論, 巢氏病源이라고도 함. 50卷, 隋·巢元方 등이 610년에 撰함. 이는 病因과 證候學을 論述한 專門書中 中國에 現존하는 첫 번째의 것이다. 全書를 67門으로 나누어 證候論 1720條를 열거하고, 各種 질병의 病因, 病理, 證候 등을 서술하였다. 諸證의 끝에는 導引法을 붙인 것이 많은데 단, 治療方藥은 기재하지 않았음. 全書의 내용이 풍

- 11) 上揭書, p.275; 근대의 醫家(1877~1956년), 字는 赤電, 浙江 鄞縣人. 일찍이 韓藥房에서 학습하고, 이후 醫學을 研鑽하여 醫學상에 상당한 성취가 있었음. 郡書를 博覽하여 “發展人所未發”할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사물의 흡수를 제창하여 保守固執을 반대하였으며. 臨證에는 대처해야 한다고 여겼음. 中藥에도 상당한 연구를 하여 《和劑局方》을 개설해서 中藥의 改良에 着手하고, 中醫學術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12) 上揭書, p.130; 唐代的 著名한 醫學家, 京兆 華源人, 그는 唐太宗 등의 國子博士로 임명한다는 請聘을 거절하고 오랫동안 民間에 거주,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약물을 채집하고, 의학을 研究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著述 入說하였음.
- 13) 上揭書, p.178; 당대의 醫學家. 世醫出身이며, 醫學을 좋아했음. 弘文館에 이십여년간 재직하여 郡書를 널리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諸家醫方을 채집함. 후에 房陵으로 좌천된 후에도 계속 의학문헌을 정리하여 《外臺秘要》를 편성함.
- 14) 上揭書, p.303; 宋代의 醫家. 1078~1085년간의 泰州 興化縣의 顯승을 지냈다. 《奉親養老書》一卷을 저작함.
- 15) 上揭書, p.310; 元代的 醫家. 字는 冰壑, 호는 敬直老人임. 泰寧人. 의술에 정통하였고,

親養老新書》 또한 중요한 氣功 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李鵬飛의 《三元壽參贊書》에도 各門派의 氣功 養生法을 많이 수록하였고, 周履靖<sup>16)</sup>의 《赤鳳髓》에는 導引圖 72쪽을 수록하였고, 明代의 朱橚 등은 《普濟方》이라는 거작을 통하여 醫書와 道藏 그리고 그 유관 공법 700여 조문을 수록하였다. 葉志詒의 《頤身集》은 모두 《攝生消息論》, 《修齡要旨》, 《勿藥元詮》, 《壽人經》, 《延年九轉法》 등 다섯 종류의 氣功養生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2) 養生書籍中の 氣功文獻<sup>17)</sup>

養生은 體質을 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長生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 중심 내용은 예방보건으로 이로 인하여 氣功과 老年醫學의 인 개념과 구별이 있게 된다. 그러나 養生의 내용 중에는 보건단련의 방법이 氣功에 속하게 된다. 가령 陶弘景의 《養性延命錄》중에서 養生의 내용이 여섯 부분 나오게 된다. 또한 明代 후기의 高濂<sup>18)</sup>은 養生書인 《尊生八箋》이란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尊生’이란 養生을 의미하고 ‘八箋’이란 養生내용 중에서 8개의 부분으로 그 중 四時調攝, 却病延年的 내용이 氣功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中央衛生部중 中醫를 관장

하는 부서에는 中醫古籍중 養生書籍들을 정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宋末 元初의 李鵬飛의 《三元延壽參贊書》중에서 李氏는 養生을 三元 즉 精氣不耗, 起居有常, 飲食有道 이 세 개의 방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저작들이 거의 百種에 이른다.

(3) 道教古籍中の 氣功文獻<sup>19)</sup>

道家書籍中の 氣功文獻은 그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류의 서적을 ‘道藏’이라고 한다. 道教문헌의 정리는 남·북조시기의 陸修靜으로부터 시작하는데 公元 47년에 《三洞經書目》을 편찬하였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편집은 唐代에서 시작하여 宋代에 완성이 되었는데 公元 1019년 《大宋天宮寶藏》 4500여권이 편성되었고 宋의 ‘道藏’이라고 칭한다. 그 후에 그 精要를 모아서 《雲笈七箋》 120권을 집성하였으니 후세에 ‘小宋藏’ 혹은 ‘小道藏’이라고 한다. 이것은 “宋藏”으로 망실된 후에 다시 보존되어 지금의 ‘宋藏’이 되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道藏은 明代의 正統10년 (公元 1455년)의 《道藏》과 萬曆 35년 (公元 1607년)의 《續道藏》으로 全書 5485권 1476종의 書目으로 서적의 내용이 광장히 광범위하고, 현재 대부분 순수 종교적인 문헌 이외에 거의 醫學, 藥物, 氣功, 生理, 化學, 物理, 數學, 地理, 地質 등의 문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각국 학자들까지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 明代의 《道藏》에서부터 清代, 中華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類의 서적에는 《道書全集》, 《道藏輯要》, 《道藏精華錄》, 《續道藏》과 개인이 저술한 《方壺外史》, 《張三豐全集》, 《道書二十種》,

宋代的 陳直의 《養老奉親書》를 계승하여 《壽親養老新書》 3卷을 저작했다.

16) 呂光榮 編著：前掲書, p.309；明代의 醫學家, 생년월일은 미상. 喜興人, 字는 逸之. 스스로 梅顛道人이라고 부름. 氣功導引에 조예가 깊고 《赤鳳髓》를 편찬하고 아울러 導引圖를 덧붙여서 氣功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함.

17) 馬濟人 主編：前掲書, p.555

18) 呂光榮 主編：前掲書, p.324；明代의 養生家. 氣功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며 字는 深甫, 號는 瑞南. 錢塘人. 기공양생법 연구에 조예가 깊고, 《尊生八箋》이라는 저서를 남김. 그중에 “清修妙論箋”에 전문적인 기공양생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19) 馬濟人 主編：前掲書, p.555

《證道秘書》 등이 있으며 그중 氣功과 관련된 문헌이 70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明代 陶珽중의 《說郛》와 《續說郛》，周履靖의 《夷門廣牘》과 胡文煥의 《格致叢書》 등이 있는데 수많은 道家氣功 養生書를 수록하고 있다.

#### (4) 佛敎古籍中の 氣功文獻<sup>20)</sup>

불교는 東漢 초에 중국에 전해져서 처음 二三百年까지는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단지 소수의 상위층 사람만이 불교에 접할 수 있었다. 東漢末의 安世高가 《安船守意經》이라는 책을 번역하여 中國 傳統氣功과 결합하게 되었다. 비록 佛敎가 道家처럼 공개적으로 氣功養生을 강구하지는 않았으나, 止觀禪定<sup>21)</sup>, 明心見性 등이 氣功修練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불교경전 중에도 아주 많은 양의 氣功문헌이 보존되어 있다. 불교의 서적은 《大藏經》이라고 불리우는데 한문과 기타문자로 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문으로 된 《大藏經》은 남북조시대에 편찬되기 시작하였는데, 북송때부터 인쇄되기 시작하여 二十種의 판본이 있었다. 현재 積砂版 《大藏經》 1532부 6323권; 金城 《大藏經》 (趨城版이라고도 한다) 6900권; 乾隆版 《大藏經》 1662부, 7168권이 있다. 불경은 二千種 이상이 있으나 氣功의 개념에서 불경을 고찰하려할 때 氣

功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江蘇吳縣積砂의 ‘大藏經’ 1532부, 6362권; 金城版 計6900권; 乾隆版 1662부, 7168권이 있으며, 劉天君 主編의 《中國佛敎氣功經典導讀》는 심리학과 思惟科學의 각도에서 불경을 정리한 것으로 네가지 부류의 불학 고적을 정선하였다. 그중 止觀禪定類는 《童蒙止觀》，《釋禪波羅密次第法門》，《六妙法門》，《摩訶止觀》，《清淨道論》 등을 포괄하고 있다. 明心見性類는 《六祖壇經》，《禪宗永嘉集》，《永嘉證道歌》，《金剛般若波羅密經》，《般若波羅密多心經》 등을 포함하고 있다. 念訟觀想類에는 《西方合論》，《阿彌陀經》，《觀無量壽佛經》 등을 포함하고 있다. 瑜珈密法類에는 《密宗道次第論》，《大手印瑜珈法要》，《密咒圓因往生集》 등을 포함하고 있다.

#### (5) 文人學者의 著作中の 氣功文獻<sup>22)</sup>

《周易》을 제외한 先秦 諸子百家중에 또한 수많은 氣功 문헌이 있다. 老子<sup>23)</sup>, 莊子是 말할 필요도 없이 道家의 宗祖이며, 孔子, 孟子, 子思 등 思孟學派의 “四書”와 “五經”은 수많은 修身養性의 문헌과 氣功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기타 《荀子》，《管子》，《韓非子》，《淮南子》，《楚詞》，《呂氏春秋》 등도 또한 많은 氣功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총괄하여 말하면 醫, 道, 儒, 法, 墨, 名家와 陰陽五行家, 縱橫

20) 馬濟人 主編, 前揭書, p.556

21) 임후성 著 임준규 譯 : 前揭書, p.17; 止란 정지한다는 의미이며, 마음의 작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연지, 제심지, 체진지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觀이란 주의 를 밖으로 돌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 公觀, 가觀, 中觀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념을止에 귀 일시키고, 철저하게 觀으로 되어 止일때도 觀으로부터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觀일 때도 止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는다.

22) 宋天彬 劉元亮 主編 : 中國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94

23) 金學主 譯解 : 新完譯 老子, 서울, 明文堂, 1996년, p19; 도가의 창시자로서 중국 춘추 시대의 사람. 무위와 자연을 내세우는 사람으로 생애나 이름 같은 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

家, 神仙家 등 諸子百家 모두 氣功學이 건립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많은 자료들이 文史著作 중에 기록되어 있다. 가령 史部의 二十四史와 地方志 또한 《神仙傳》, 《列仙傳》 등 氣功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唐宋의 시인과 문학가, 가령 白居易, 盧照隣, 王維, 杜甫, 柳宗元, 蘇息, 陸游, 歐陽修, 沈括 등의 文人 등도 氣功수련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인식하였던 바를 詩文 中에 기록을 하였다. 宋明의 程朱理學 學派들은 道學에 영향을 받아 많은 문인들의 著作 中에 靜坐練功의 문헌들을 실어 놓았다 가령 黃宗炎의 《宋元學案》, 邵雍의 《陸壞集》 이외에 《張子語彙》, 《朱子語類》, 《河南程氏遺書》 등이 모두 이것이다. 총괄하여 말하면 經, 史, 子, 集의 고대문헌 분류의 차원에서 보면 每部 또한 氣功 문헌을 수록하고 있으며, 범위 또한 매우 넓다. 가령 《白居易集》, 《蘇息文集》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東坡志林》, 《蘇沈良方》, 陳繼儒의 《養生膚語》, 袁了凡의 《靜坐要訣》, 王夫之의 《前愚鼓樂》, 《後愚鼓樂》, 李豫亨의 《推篷寤語》, 俞曲園의 《春在堂全書》, 그리고 《居家必讀》, 《學海類編》, 《水邊林下》, 《重訂欣賞編》 등의 서적에 또한 많은 氣功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다.

儒家の 理學派들은 靜坐練功을 통하여 智力을 개발하여 책을 읽는 효과를 提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저작 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明清에서 中華民國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武術家の 저술 또한 氣功 문헌에 속하는데 특별히 太極, 形意 八卦掌 등의 內家拳法은 古代 氣功의 傳統을 全面的으로 이어 받은 것이다. 清末의 存我齋主

人集의 《少林棒術秘訣》이라는 책의 首章이 《氣功闡微》이다. 기타 禪空의 《少林呼吸法》, 萬賴聲의 《武術滙宗》, 金鳴正의 《練功秘訣》 등 또한 武術과 氣功 呼吸과의 相關關係를 표명하였다.

## 2) 氣功文獻 研究의 範疇

氣功文獻 研究는 고대의 氣功문헌의 발굴, 정리, 종합분석을 통하여 고대의 자료를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氣功學術의 계승, 발전하는 역할을 한다. 문헌연구는 전대 사람들의 귀중한 이론과 경험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옛사람들의 유물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있다. 만약에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헌적인 자료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의학의 발전측면에서 본다면 前代 사람들의 성과를 연구 종합하고, 이미 도달하였던 수준과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연구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中醫學이 이러한듯이 氣功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다. 또한 만약 氣功 문헌 연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氣功은 한 민족의 독특한 민족문화 유산이며, 氣功은 민족의 전통문화의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고, 氣功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롭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氣功문헌연구의 범위는 근래의 몇 년 동안 모색해 온 것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氣功古籍의 定理研究

氣功古籍의 標点, 校勘, 註釋, 語譯을 포괄한다. 이미 失傳된 고적을 모아서 복구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거나 혹은 원래의 모습에 근접하도록 한다. 그 내용으로

는 氣功古籍의 眞僞를 가려내고, 판본 고증에 대한 연구를 하며, 氣功古籍의 縱書와 類書を 편집하고, 중요한 氣功古籍의 옛주를 모아서 편찬하거나 혹은 전제문헌을 가려서 편찬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 (2) 傳統功法的의 연구

氣功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功法이 三千六百 종류가 되는데 이러한 공법을 모으고, 各類派 공법의 특징들을 모으며, 各類派의 공법을 연구하고, 공법들에 대한 실제 수련을 통하여 여기서 나온 독특한 이론들이 전통이론과 서로 부합하는가를 연구하여 실제 氣功修練을 지도할 수 있게 한다

### (3) 氣功 참고서의 정리 연구

氣功문헌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氣功을 수련하고, 이를 입상에 응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氣功書目과 解題의 편찬, 氣功辭典의 편찬, 문헌색인과 氣功功法圖錄을 편집한다.

### (4) 氣功歷史의 연구

氣功歷史의 연구는 문헌을 연구하고 고적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부분이다. 氣功史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 내용 또한 대단히 방대하다. 가령 氣功通史의 연구, 斷代史의 연구, 氣功人物의 연구, 氣功類派의 발전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 3) 氣功文獻을 整理하는 方法

문헌을 연구, 정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문에 속하는 것으로 문헌학이라고 한다. 문헌학은 또한 네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포괄하는데 : 目錄學, 板本學, 校勘學, 訓詁學이 이것이다.

### (1) 目錄學

목록학은 고서의 목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sup>24)</sup>. 목록학은 여러 책을 분류하고 移動을

구분하며, 大義를 밝히고, 同流를 서로 연결시키며, 학술을 분석하고, 원류를 탐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용이하게 얻어볼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문학술이다. 목록의 어원은 ‘目’은 篇目を 가리키고 ‘錄’은 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것으로서 劉向의 “條其篇目 撮其旨意”란 말에서 그 뜻이 잘 나타나 있다. 후대에 와서 ‘目錄’이라는 것은 著錄古籍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즉 目은 編次와 要目を 분석하는 것이요, 錄은 그 책의 요지를 발췌해 냄을 뜻하고 있다. 즉 目錄學는 단순히 목록에 관한 학문일 뿐 아니라, 학술사이며 문헌학사이기도 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書誌學이라고 하였으며, 현대에서는 문헌정보학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의 고대에서 근세이전까지의 여러 학문 분야 중 현대의 문헌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목록학 이외에도 ‘校勘學’, ‘板本學’, ‘訓詁學’이 있다.

고적의 내용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서적이다. 清代의 王鳴盛은 《十七史商榷》의 卷一에서 말하기를 “目錄은 書名, 卷數, 著者, 板刻, 題解, 分類小序 등의 몇 가지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目錄의 편찬내용이 다르고, 編者가 강조하는 부분 또한 달라서 목록 또한 약간의 서로 다른 명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목록에는 정부에서 작성한 官修目錄과, 개인이 私的으로 편찬한 목록과, 각대의 역사에 수록되어 보존된 史志目錄과, 판본에 대한 목록, 전문과목 목록이 있다.

### ① 官修目錄

官修目錄이라는 것은 봉건왕조의 중앙정부도서관의 藏書目錄이다. 西漢때의 劉歆은

24) 馬濟人 主編 : 前揭書, p.558

부친인 劉向의 유지를 계속이어 받아서 天祿閣의 政府藏書를 이용하여 《七略》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역사상의 최초의 官修目錄이 되었다.

《七略》은 일곱 개의 부분으로 輯略, 六藝略, 讀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 ② 史志目錄

史志目錄은 각대의 正史中の ‘藝文志’, ‘經籍志’를 가리킨다. ‘藝’는 儒家의 經典을 가리키고, ‘文’은 文學著作을 가리킨다. 고대의 문학개념은 거의 文, 史, 哲 등의 각개 방면을 포괄하였다. 그러므로 ‘藝文’은 실제로 각종의 고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③ 私的으로 편찬한 목록

私的으로 편찬한 목록은 私的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적을 기초로 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私的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적을 목록으로 편찬한 것은 南北朝시대의 宋代 사람인 王儉의 《七志》와 梁나라 사람인 阮孝緒의 《七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이 저작한 도서의 종류와 권수와 편찬한 목록의 수준이 모두 당시 官에서 저술한 목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당대 中後期부터 시작하여 아로새기는 판본의 인쇄술을 응용하여 官刻과 私刻의 도서들이 더욱 날로 증가하였고, 私的으로 서적을 보관하는 집안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宋代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유명한 장서가들이 거의 천명을 넘게 되었다.

### ④ 版本目錄

版本目錄은 手抄本, 批校本, 雕印本이 있으나 雕印本이 위주가 된다. 많은 藏書家들이 古書版本의 翻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善本을 선택하여 고적을 정리연구 하여 版本目錄이라는 類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版本目錄은 南宋의

《遂初堂書目》이다. 당시의 각본수가 많지 않아서 그의 著錄에 나오는 판본은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經本, 舊監本, 秘刻本, 江西本 등의 명칭이 있다. 明末, 清初의 藏書家 겸 刻書家인 毛晉의 《汲古閣書跋》은 그가 판각한 經史子集과 唐宋元시기의 저작에 대한 跋文을 모아 놓았다. 이 跋文은 毛晉이 책을 판각할 때 책의 뒷부분에 덧붙여 놓은 것으로 원서에 대해서 판본을 포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아 版本目錄이라고 볼 수 있다. 清代의 藏書家인 錢曾은 3800여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중에 가장 진귀한 宋, 元 각본 600여종을 선택하여 《讀書敏求記》를 편성하여 版式, 行款, 刀迹, 紙質을 통하여 새겨진 연대를 판단하고, 다시 祖本, 子本, 原版, 修補版을 통하여 판본의 가치까지 판정하였다. 黃丕烈的 《蕘圃藏書志》, 《蕘圃藏齋說附錄》은 판본을 감정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 顧廣昕이 校刻한 《思適齋集》과 《思適齋書跋》이 있고, 張金吾의 《爰日精廬藏書志》의 序文과 跋文에 각 서적 版本의 元刻, 翻刻의 상황을 모두 고증, 설명하였다. 清代 후기의 張之洞이 편저한 《書目答問》과 范希曾이 증보한 《書目答問補正》 또한 판본학의 지침서로 사용되고 있다.

### ⑤ 專科目錄

專門科目 目錄은 종합적인 百科目錄에 상대되는 말이다. 이는 어떠한 학문의 도서 著目을 대상으로 편찬한 목록으로 이러한 목록의 발생과 발전은 고대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변화와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역대 학자들의 어떤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중국 고대 전문과목에 대한 목록이 매우 풍부하고 각종 서로 다른 학과영역 또한 전문 목록이 있다.

中國醫藥學 또한 위대한 寶庫로 방대한



醫藥著作이 있으며 《漢書·藝文志》에 書目이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쉽게 볼 수 있는 中醫書目은 다음과 같다.<sup>25)</sup>

가. 中國醫籍考

《醫籍考》는 일본의 丹波元胤이 편저한 것으로 公元 1826년에 쓰여졌고 80권으로 되어 있으며 9개로 분류되어 있다. 秦漢부터 1800년대 초까지의 醫籍 2천6백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광대한 영역에까지 다루었고 考證이 정밀하고, 매 서적마다 모두 作者, 出處, 卷數, 存失여부, 序文, 跋文, 作者 略歷을 수록하였으며, 간단히 편자의 고찰 부분을 덧붙였다.

나. 宋以前醫籍考

일본 岡西爲人이 편저한 것으로 전권 23류로 되어 있고, 중국의 宋 以前 醫學書目 1860여종을 수록하고 있다. 매 書目 아래에 出典, 考證, 序文, 跋文, 版本 등의 항목을 수록하였다.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58년 重排本이 있다.

다. 醫學讀書志

清代 曹禾撰의 《雙梧書屋醫書四種》중의 하나이다. 487部 7717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서적은 醫家の 강령이 되는 것으로 著作, 原流, 提要를 망라하였다.

라. 中國醫學大成總目提要

近代의 曹炳章이 편저하였다. 만여 종의 의서 중에서 365종을 정선하여 《中國醫學大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13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提要 한편씩을 앞부분에 덧붙여 놓았다.

마. 四部總錄醫藥編

丁福保, 周雲清 편저로 《四部總錄》은 원래 經, 史, 子, 集의 4부류를 포괄하는 것이다. 전인들의 序文과 跋文, 解題를 구비한

書目이다. 그 중에서 子部의 醫家類를 발행하였는데 改名하여 《四部總錄·醫藥編》이라 하였다. 본서는 醫藥에 관한 서적 근 500여종을 수록하고 있다. 본 서적은 현존하는 版本著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바. 中醫圖書聯合目錄

中醫研究院과 北京圖書館이 合編하여 1961년에 출판되었다. 본 서적은 북경도서관에서 1959년말 전국 59개 도서관과 양대 藏書家가 소장하고 있는 中醫圖書目錄을 모아서 편성하였다. 中醫研究院에서 교정을 보았으며 모두 7661종의 책을 수록하였고, 18개의 큰 부류로 나누었다. 같은 類의 서적은 연대의 선후에 따라서 배열하였다.

사. 中醫圖書目錄

상해중의학원의 도서관에서 편찬하여 내부인쇄 하였다. 이 목록은 상해중의학원에서 소장하는 책에 한계가 있어서 正編과 續編으로 양분하였으며 正編에는 1906년 6월 말에 이르는 8406종을 수록하였고, 續編은 1909년 6월말까지에 새로 수집된 것과 빠진 것들 628종을 수록하였다. 21개의 큰 부류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소 분류를 하였다. 각류별 저작을 시대의 선후에 따라 배열하였다.

아. 三百種醫籍錄

賈維成이 편저한 것으로 香港강 科技出版社에서 1982년 2월에 출판되었다. 본 서적은 中醫, 西醫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의고적을 열람하여 醫學史, 문헌 참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서적은清代와 그이전의 주요 醫籍을 72부류로 나누었다. 매 종의 의적은 4항의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는 내용의 提要, 두 번째는 작자의 소개, 세 번째는 역대의적 藝文志와 私的으로 소장하는 사람의 書目著錄,

25) 上揭書, p.562

輯要를 수록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현존하는 주요 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中國分省醫籍考 上,下

郭霽春이 主編하고 天津科技出版社에서 1984년에 출판되었다. 본 서적은 6천여 종에 이르는 各城의 地方志를 참고하여 편찬되었다. 醫書 8천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30개의 城, 市, 자치구로 나누어서 매 城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개의 부류로 나누었으며 매 부류의 書目은 역사와 저자 생존시기의 차례로 분류하였으며, 위로는 先秦시기로부터 清末에 이르기까지 정리하였다. 매 서적마다 著作, 卷數, 時代, 作家, 出處 등을 살펴보았으며 작자의 생애와 의학사상을 함께 수록하였다.

차. 中國醫籍提要 上

본 서적은 吉林人民出版社에서 1984년에 출판되었다. 본 서적은 504종에 이르는 醫書의 提要를 수록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清代以前の 저작이고 검하여 몇 부의 일본, 한국 의서가 있는데 기초 이론 등 4개로 크게 나누었다. 본서의 提要에서 특징적인 것은 原著중의 精華를 뽑아내서 原著의 학술특징과, 학술성취, 학술의 원류를 돌출하여 독자에게 중국의학을 학습하는데 자료로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카. 館藏中醫線裝書目

중국중의 연구원도서관에서 편저한 것으로 중의고적출판사에서 1986년에 출판하였다. 본 서목은 관장중의 중의전장서 四五百種을 수록하고 있는데 역대 판본 7500여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중 中醫善本도서 천여 종을 포괄하고 있다. 書目的 서열은 분류와 연대를 살펴서 배열하였고, 중의도서의 학문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역대문헌의 발전원류를 반영하였다.

타.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

中國中醫 연구원도서관에서 1908년부터 시작하여 중의도서 목록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전국 모두 115개의 도서관이 참가하여 편찬하였으며, 1986년 10월에 출판되었다. 전서는 秦漢시기에서부터 현재 중국의약저작까지 1300여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판본은 약3만 여종에 이른다. 내용적으로는 12개로 크게 분류가 되고 기본적으로 전국 주요 중의장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파. 中醫醫籍通考

嚴世芸이 주편하고 상해중의학원에서 1990년 6월에 출판하였다. 전서 9천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第一卷중에 醫經, 傷寒, 金匱, 藏象, 診法, 本草, 運氣, 養生의 8개로 크게 분류하였고, 매부에는 책 아래에 원서의 序文과 跋文을 두었고, 본서 편자의 按語와 현재 판본 현황을 첨가하였다.

### (2) 版本學

漢代에 제지기술이 발명된 이후 고대 문헌의 형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종이 가 竹簡과 비단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고적의 서적이나 刻印재료가 되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고적 문헌은 寫本과 印本の 두 가지 종류의 형식으로 후세에 전해져 내려왔다. 刻板印本은 唐에서부터 시작하여 五代兩宋시기에 왕성하게 이루어 졌으며 明清 양시대에 계속해서 印本이 성행해 왔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정리하는 대상이자 版本學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책에 있어서 판본을 칭하는 것은 劉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劉向은 《別錄》에서 이르기를 “一人之讀 校其上下 得謬誤爲校 一人之本 一人讀書 若怨家相對爲讎”라고 하였다. 南北朝시대에 이르러서 顏之推가 《顏代家訓》을 저술하였는데, 그 《書正編》중에 수없이 많이 ‘本’이라는 것을 열거하였다. 가령 江南本,

河北本, 續本, 江南舊本, 江南書本 등이 이러한 것이다. 그때 당시 판본이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통속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책은 모두 寫本이었다. 唐이래 雕板으로 책을 인쇄하게된 이후 版本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이는 宋代 사람들의 書籍 중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 당시 版本이라고 하는 것은 雕板印刷<sup>26)</sup>되어서 이루어진 책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판본은 印本을 지칭하는 것으로 또 印本이 墨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에 墨本이라고도 한다.

후에 많은 판본이 서로 섞여서 복잡하게 사용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校讎란 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校讎하여 잘된 판본을 생산하고, 또한 잘된 판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版本學이 생겨나게 되었다. 版本學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舉凡寫本, 歷代刊本, 歷代傳抄本, 批校本, 稿本으로 열거할 수 있으며 매 서적의 雕板源流, 傳抄源流와 어떤 것이 善本이고 어떤 것이 劣本이며 어떤 것이 翻刻인지, 印紙의 墨色, 글자체의 조각법, 藏書의 印記, 版色行款, 裝橫樣式 등 모두가 판본학의 연구범위가 된다.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또한 연관관계가 있다. 베껴서 조각된 시대가 서로 다르고 지역이 서로 다르며, 각자가 서로 달라 抄寫방식과 刻印방식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고적이 저절로 다양각색의 판본이 형성되었다. 印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조해 보면 唐刻本, 五代刻本, 宋刻本, 金刻本, 元刻本, 明刻本과 淸刻本이 있다. 인쇄된 지역에 따라서 살펴보면 浙本, 閩本, 蜀本 平陽本 등이 있으며

그중 浙本은 또한 杭州本, 衢州本, 婺州本, 台州本이 있고, 閩本 또한 建寧本, 建陽本 麻沙本이 있고 蜀本에도 또한 蜀大字本, 眉山本 등이 있다.

출판 단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官刻本, 家刻本, 坊刻本의 구별이 있다. 官刻本은 국가단위에서 각인한 판본이다. 官刻本에는 國子監本, 經廣本, 內府本, 殿本 등이 있고; 地方刻本에는 藩府本, 府學本, 郡庠本, 州學本, 縣學本과 각지방의 書院本, 局刻本 등이 있다.

家刻本은 한 사람이 刻印한 판본으로 그 중에는 집안의 이름으로 호칭한 것이 있는데 汲古閣本은 明代毛晉家刻書이고, 通志堂本은 淸代納蘭成德家의 각본이다. 어떤 것은 성명으로 호칭한 것도 있는데 가령 宋黃善夫本, 周必大本, 明吳勉學本, 淸許槌刻本이 있고, 성씨단위로 호칭한 것도 있는데 王本 《史記》로 明代의 王延哲 刻本이고 閔刻本은 明代의 吳興閔齊伋 版本이고, 凌刻本은 明代 吳興凌濛初刻 등이 있다.

坊刻本은 역대 지방에서 板刻한 것으로 호칭을 불문하고 書棚, 書鋪, 書堂, 書肆, 書店, 書局등 그 각인한 서적 모두를 포함시킨다. 坊刻本은 明, 淸 兩대에 크게 융성했던 것으로 宋代의 黃三八書鋪, 尹家書籍鋪, 崔氏書肆, 開經書鋪, 雙桂堂, 書隱齋 傳濟堂, 建安堂, 月厓書堂, 種德堂 등이 있다. 明代의 저명한 것으로는 錫山華氏蘭雪堂, 昆山葉盛菴竹堂, 錫山安國桂坡館, 浙江馬元調寶儉堂, 東吳徐時泰東雅堂, 吳郡顧春世德堂, 蘇獻可通津草堂, 嘉禾項篤壽萬卷堂등이 있다. 淸代의 유명한 것으로는 張士俊澤存堂, 陸鐘輝水雲漁屋, 項氏玉淵堂, 碧筠草堂 등이 있다.<sup>27)</sup>

2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中韓辭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9, p.560; 雕版印刷 - 판목에 글자를 새겨서 인쇄하는 방법,

27) 馬濟人 主編：前揭書, pp.565~566

고적의 부단한 翻刻으로 인하여 동일 고적에서도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字句에서 차이점이 있고, 권수가 서로 다른 판본이 있을 수 있다. 가령 《史記》의 版本은 60종 이상에 이른다. 중의고적과 氣功古籍중에도 또한 이와 같은 類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서적이 여러 종류의 版本을 가지고 있거나, 시간, 장소 조건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sup>28)</sup> 첫 번째는 傳抄, 傳刻하는 도중에 교감이 정확하지 않거나 빠진 문장이나 잘못된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줄이 빠져버리거나 심지어는 한 편 전체가 모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두 번째는 베껴 쓰거나 판각을 할 때 書名, 卷數를 다르게 쓰거나 심하면 중도에 改作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는 판각하는 사람 임의로 내용을 첨삭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로는 그리기 힘든 그림이나 판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임의대로 없애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역대 봉건통치자들이 임의대로 훼손시켜버리거나 첨삭을 加하거나 고적판본자체에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판본상의 착오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고적과 결합하여 의학, 종교 분야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다.

氣功 고적에서 판본의 연구 정리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공고적이 모두 明代후기와 清代에 刻印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빠지고 없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고, 판본 자체 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을 분간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

본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고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魏伯陽의 《周易參同契》를 예를 들어 본다.

#### ① 《周易參同契》의 版本

魏伯陽의 《周易參同契》를 후세에 注解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고, 이러한 注本の 기초 위에 魏書가 세상에 전해지는 판본의 상황을 반영한다.

《參同契》는 東漢 桓帝시대에 魏伯陽에 의하여 易經속에 포함되어 있는 象數學을 빌려 저술된 丹學經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參同契》가 이루어진 시대는 《道德經》, 《莊子》 등으로 대표되는 黃帝, 老子的 無爲自然 思想과 《周易》으로 대표되는 우주론적 상대성원리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이른바 ‘玄學’이 바야흐로 태동하는 시기였으며 또한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도 여러 갈래의 流派를 낳으면서 구체화되고 있었던 때로서 淮南王, 劉安 등이 神仙 黃白術을 정립시키고 있었다. 《參同契》는 性命雙修하는 丹學에 관한 경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이며, 그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丹經道書가 그에 의거해 있고 그 용어를 채택하고 있어서 많은 修鍊家들이 丹學의 聖經이라고 말하고 있다.

《參同契》는 결국 우주 특히 해와 달이 운행하는 이치와 사람의 성명의 이치가 같으므로, 性命을 닦는 요령을 밝힌 것인데, 그 내용 구성을 보면 크게 上, 中, 下 세 권으로 나뉘며, 上卷과 中卷은 다시 각각 御政, 養性, 伏食으로 나뉘어 3장을 이루었고 下卷은 上, 中卷에서 미흡했던 것을 더 보태어 빠짐이 없도록 해 놓았다. 下卷은 《參同契》와 따로 《補塞遺脫》이라는 책을 이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sup>29)</sup>

고대의 수십 명에 이르는 학자들의 注本

28) 上揭書, pp.566~567

가운데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가. 五代時期의 永康彭曉가 撰한 것으로 《參同契分章通眞義》3卷, 《參同契鼎器歌明鏡圖》1卷이 있다. 原文을 90장으로 나누어 注를 달았으며 歌鼎器一篇을 뒤에 열거하였다. 또한 明鏡圖訣 한편을 下卷의 뒤에 덧붙였다.

朱喜의 《周易參同契考異》는 章과 순서가 모두 彭本을 의거하고 있다. 《永樂大典》에 기재되어 있는 《參同契》 또한 彭書를 사용하고 있다.

나. 南宋 淮陽의 陳顯微가 撰한 것으로 《周易參同契解》가 있다. 原文을 稅權으로 나누었으며 章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는 彭本을 의거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銓釋이 비교적 상세하다는 것이다.

다. 元代 吳縣의 俞琰이 撰한 것으로 《周易參同契發揮》3권과 《周易參同契釋疑》1권이 있다. 원문의 순서는 전부 彭本과 동일하다. 매 조문마다 注를 붙였으며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釋疑》 세 권은 朱喜가 撰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다. 글 가운데 그림을 추가한 것이 많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라. 元代 陳致虛가 撰한 것으로 《周易參同契分章注》3권이 있는데 原文을 三十五章으로 분류하여 彭本이 九十章으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다. 또한 彭本에서 鼎器歌一篇을 뒤로 옮긴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였고 陳致虛는 法象成功章의 뒤에 배열하였다. 기타 순서는 彭本과 같다.

마. 明餘姚章一彪는 《古文參同契集解》를

編纂하였다.

(3) 校勘學<sup>30)</sup>

校勘學은 校讎學이라고도 하는데 校讎란 교정을 말하며, 讎란 두 사람이 마주앉아 대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오늘날의 校訂의 의미와 같다. 이를 좀더 書誌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수학이란 도서의 수집, 선택, 교감, 분류 편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目錄學의 시초이다. 교열이라는 의미보다는 교수라는 의미가 더욱 적합하리라 본다<sup>31)</sup>.

고적은 면면히 오랜 세월을 전해져 내려오면서 잘못 전해지는 것을 면하기 힘들는데 특별히 손으로 판각을 하는 과정 중에 종종 글을 빼먹는다든지 글자를 잘못 각인한다든지 혹은 없는 문장이나 구절을 덧붙인다든지 잘못 삭제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책이 세 번 베껴 쓰여지게 되면 魚가 魯되고, 虛가 虎로 된다.”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校勘은 옛날에는 校讎 혹은 讎校라고 하였다. 고대에 학식이 있는 선비들은 모두 특별히 이러한 작업을 중요시하였다. 漢代의 劉向은 《別錄》에서 이르기를 “讎校라는 말에 있어서 한사람이 책을 읽어가면서 상하를 비교해보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校라고 하고 한사람은 판본을 들고, 한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 마치 원수지간에 서로의 흠을 잡듯이 하는 것을 讎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校書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劉向이 《管子別錄》에서 이르기를 “《管

29) 魏伯陽原著 朱元育闡幽 李允熙譯註：參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25

30)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前掲書, p.1128；校勘學 - 서적을 서로 다른 판본 또는 관계 있는 자료와 비교 연구하여 내용이나 문자의 이동을 밝혀내는 학문 영역으로, 그 목적은 원본의 정확한 모습을 밝히는 데 있음.

31) 이세열 解譯：漢書 藝文志, 자유문고, 서울, 1995, p.8

子》389편을 校讎하는 중에 大中大夫卜圭書 27편, 臣富參書41편, 射聲校尉立書11편, 太史書96편, 모두 무릇 중외564편을 校訂하면서 중복된 484편을 제외하고 나서 86편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하여 校書는 여러 판본들을 모아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誤謬를 바로 잡으며 제일 나중에 필사하여 정본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록 많은 판본을 이용하여 교감을 보았을 지라도 한 차례만으로 완전무결한 표준 판본을 이룰 수는 없다. 이를 통해서 볼 때 校勘이라는 작업은 매우 번잡하고 치밀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劉向이 교감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세운 후에 대대로 교감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적을 교감하는 것 이외에 역대 儒臣學者和 藏書家들 또한 교감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많은 각가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가령 당대의 劉知几, 宋代的 鄭樵, 明代的 汲古閣의 주인인 毛晋과 清代의 章學誠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투철하고 예리하게 교감을 하여 고적을 교감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清代의 校勘學은 乾隆嘉慶時期에 상당히 융성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校勘學의 대가들은 각각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葉德輝는 《藏書十略·校勘》에 이르기를 “校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死校가 있고, 두 번째는 活校가 있다. 死校라는 것은 이 版本으로 저 版本을 교정하는데 있어서 한 행이나 몇 글자에 표시를 해두고 비록 誤字가 있을지라도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活校라는 것은 여러 책을 참고하여 그 잘못된 글자를 고치고, 빠진 문장을 보충하며, 또한 다른 각본을 제시하여 올바른 것

을 선택하여 다른 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sup>32)</sup>

中醫古籍에서 氣功古籍의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부분 또한 상당히 심하다. 기공고적의 상황에 대해서 모아진 자료가 계속 쌓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고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고 中醫古籍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中醫古籍중의 하나인 《黃帝內經》을 가지고 설명해보기로 한다.

《黃帝內經》은 간단하게 《內經》이라고도 하는데 黃帝와 岐伯 등의 문답형식으로 쓰였다. 이는 중국에 현존하는 최초의 醫書이며, 대략 전국시기에 성서되었다. 原書는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素問》과 《靈樞》가 각각 9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의학이론이 위주이며 鍼灸, 方藥의 치료, 養生法이 있다. 소박한 실증적 관점에서 東醫基礎理論, 辨證論治規律, 病證 등 다방면의 내용을 천술하여 동의학의 이론기초를 정립하였다. 本書는 後世傳本에 《素問》과 《靈樞》외에 《黃帝內經太素》, 《針灸甲乙經》의 兩種의 古傳本이 있다. 《太素》는 《內經》의 原始傳本에 근거하여 새로 분류 개편해서 만든 것이며, 《甲乙經》은 《內經》과 《明堂孔穴治要》 二書を 분류 개편한 것이다.

《內經》은 南宋, 金元時期에 다시 失散되었다가 全元起를 통해서 다시 訓解되었다. 그러다가 唐代의 王冰에 와서 《素問》에서 혹 한편이 거둬서 나오거나, 다른 2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혹은 兩論이 합쳐져서 1개의 篇目이 되기도 하고, 혹은 脫簡되고, 혹 문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扁題로 넘어가기도 하였으며, 혹은 빠

32) 馬濟人 主編 : 前掲書, pp.574~575

져있는 상태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經合》이 중복되어 《針服》의 제목이 되기도 하였으며 《方宜》가 합쳐져서 《咳篇》이 되고, 《虛實》이 《逆從》이 되고 《經絡》이 합쳐져서 《論要》가 되었으며 《皮部》가 나누어져서 《經絡》이 되고 《至教》가 《先針》이 되는 등 이와 같이 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sup>33)</sup>

校勘學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과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서술하고자 한다.<sup>34)</sup>

- ① 매 서적은 校勘을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판본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야하며 版本 중에 가장 정밀하고, 잘못된 부분이 가장 적은 것을 선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主校本, 旁校本 그리고 參校本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원본의 版本과 校本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 가령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문장이나, 덧붙여진 문장, 誤字, 도치된 부분,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모두 교정하여야 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빠진 것을 보충하며,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眞僞를 가려서 자세히 풀어야 하며, 篇目을 나누어서 정리하여야 한다. 正誤가 불분명하거나 바로 확정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 그대로 놓아 둘 수도 있다.
- ③ 교감을 할 경우에 對校, 本校, 他校, 理校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對校, 本校, 他校를 위주로 삼아야 하고, 理校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교정본이 서로 다른 점이 나오거나 혹은 여러 설이 존재하여 어느

하나를 따르기 힘든 경우 혹은 여러 교정본이 일치하나 의리상에서 어그리진 경우에는 理校를 이용하여 교정을 하여야 하나 단 근거가 충분하여야 한다.

- ④ 교감을 하는데 있어서는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서의 내용은 삭제하거나 개편을 하지 말고 힘써서 회복시키거나 원서에 근접하도록 하여 현존하는 판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

ㄱ. 원본중의 명확한 잘못된 글자나 다른 글자 혹은 작은 오점은 고칠 수 있고 교정을 하였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初稿는 바꾼 글자 아래에 x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령 日과 曰, 己와 巳 등을 섞어서 사용한 경우 이는 잘못 刻印한 것이 확실하므로 고치게 되면 문리가 바로 통하고 고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나 고쳐도 되지만 ‘其民日補’과 ‘其民曰補’를 같이 사용된 경우에는 비록 글자 한자의 차이이지만 意義는 판이하게 틀리게 되므로 마땅히 교정을 하여야 하고, 원글자 아래에 각주를 달아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

ㄴ. 원본에는 바르게 되어 있으나 校本에는 잘못된 부분은 교정을 하지 않는다.

ㄷ. 원본과 교정본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본 중에서 잘못된 것과 빠진 것, 덧붙여진 문장, 도치된 문장은 원문을 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혹은 증삭을 하고서 注를 달아 주어야 한다.

ㄹ. 원본과 교정본이 일치하지 않아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잘 알 수 없으나

33) 上揭書, p.574

34) 中國衛生部 中醫司古籍整理出版公室: 《中醫古籍校注通則·通則》, 1984.

교정본의 文義가 비교적 우수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원문을 고치지 않고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여 어떠한 것이 더 옳은지를 제시할 수 있다.

ㄱ. 원본과 교정본이 서로 일치하기는 하나 文義를 살펴본 결과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덧붙여진 부분과 도치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보류해 놓고 의문난 곳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ㄴ. 원본 중에 동일한 내용이 앞뒤에 나오는데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文義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注를 덧붙여야 한다. 만약 앞에서 이미 교정을 보았으나 뒤에 다시 보일 경우에는 다시 注를 덧붙여야 한다.

ㄷ. 虛辭의 경우 원본과 교정본이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된 취지와는 무관할 경우에는 개정할 필요 없고, 注를 덧붙일 필요가 없으나 원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을 하고 注를 덧붙여야 한다.

ㄹ. 원본의 序文과 跋文, 前言, 後記등 전부를 기술하였으나, 다른 판본 중에 있는 序文과 跋文 같은 것은 근거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으며 說明이나 校勘, 註釋을 덧붙여 놓는다.

ㅁ. 目錄과 原文, 標題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가령 目錄과 原文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서 정리하여야 한다.; 原文이 정확하고 목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原文을 근거로 해서 목록을 교정하여야 하고, 注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가령 원목록의 배열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編을 배열할 수 있는데 반드시 校注의 後期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만약 目錄은 정확한데 原文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을 근거로 하여 원문을 교정할 수 있고 註釋을 통하여 說明하여야 한다.

ㅂ. 傳抄나 翻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錯誤를 교감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原書를 근거로 하여 校勘을 하여야 한다. 원저자의 학술견해 혹은 사유방식의 착오는 校注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ㅅ. 서적 가운데 다른 서적이거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삭제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도 원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살려야 하며, 原文의 本文을 고치지 않고 원서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만약 인용한 원문에 비교적 많은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나 文義를 손상시킨 경우 만약 저자가 원래 실수를 하였을 지라도 원문을 고치지는 않고, 校注를 통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만약 후대에 넘어오면서 원문에 변화가 있게 된 경우에는 원문을 고치지 않고 주석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ㅇ. 구체적인 사실이나 혹은 사람, 지명, 연대의 기술에 있어서 명확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두고 주석을 통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 (4) 訓詁學

訓詁라는 의미는 현대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解釋의 별칭이며 또한 말로서 말을 해석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訓詁라는 것은 古語를 해석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훈고학은 멀리 春秋戰國시대 때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의 발전과 생산력의 증가, 문화 수준의 상승을 따라서 언어 또한 사회의 발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제후들이 각 지방을 割據하여 이에 따라서 언어가 서로 다르고, 문자가 서로 각각인 상황으로 사람들 또한 서로 다른 음성과 언어와 문자를 해석해야 했으므로 이에 조기 훈고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시대가 상당히 오래되어 후대 사람들이 前代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문헌고적을 읽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 가령 漢代의 사람이 先秦時期나 혹은 그보다 오래된 고적을 읽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唐代에 이르러서 일반사람들이 漢代나 先秦時期의 고적을 이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중의고적에 대한 상황도 또한 이와 같다.

이상의 정황을 기본으로 해서 早期 漢代에 古代典籍중 언어문자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초문헌 작업이 진행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訓詁다. 訓詁는 최초로 ‘詁’라고 칭하기도 하고, ‘訓’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詁’자는 역시 ‘故’라고도 쓰였다. 漢代 이후에 겨우 ‘訓詁’라고 칭하였고 또한 ‘詁訓’이라고도 하였다. ‘訓詁’라고 連用하게 된 것은 西漢初期의 毛亨이 《詩經》에 대한 傳注인 《毛詩訓詁傳》에서 시작하였다. 옛사람들이 훈고에 대한 해석을 종종 해왔는데 아래와 같다.<sup>35)</sup>

東漢時期의 許慎은 《說文解字·言部》에서 이르기를 “訓은 說敎다.”, “詁는 訓詁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清代의 段玉裁는 그의 《說文解字注》에서 말하기를, “訓

詁言이라는 것은 古語를 해석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를 詁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나누어서 보면 《爾雅》에서 詁, 訓, 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세 가지는 실제로 하나이다. 漢代의 傳注에서는 故라고 많이 하였는데 故라는 것은 결국은 詁이다. 《毛詩》에 이르기를 故訓傳이라는 것에서 故訓은 故言을 말하는 것으로 故言을 모아서 傳을 만드는 것이다. 故言을 모아서 傳을 만든다는 것 역시 詁이다. 賈誼는 《左氏傳訓故》“訓詁라는 것은 故言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唐代의 陸德明은 《爾雅音義·釋詁》에서 魏代의 張揖의 《雜字》에서 이르기를 : “詁라는 것은 古今의 서로 다른 말이다. ; 訓이라는 것은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6)</sup>

中國의 역대 문인학자들은 訓詁라는 작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였고, 清代에 이르러서 訓詁學 분야에 거대한 발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注疏와 語義를 해석해 놓은 전문 훈고서적을 막론하고 모두 前代를 초월하였으며, 清代와 近代學者들의 노력을 통하여 訓古學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이론과 전문서적을 남기게 되었으며, 명확한 연구범위와 방향을 가진 訓詁學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되었다. 中醫古籍이나 氣功古籍을 연구, 정리를 하는데 訓詁學의 도움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훈고학적인 방법과 요구를 이용하여 겨우 진정으로 古籍을 현대사람들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訓詁學은 실제로 광범위한 실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訓詁學의 내용은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이외에 句節을 분석하고,

35) 馬濟人 主編：前掲書, pp.577~578

36) 上掲書, pp.577~578

語法을 闡述하며, 修辭手段을 설명하고 句文關係와 編章의 結合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訓詁學의 方法을 가지고 말하면 訓詁는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 되므로 그의 주요방법은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 의미를 구하는 것과 글자의 소리를 가지고 의미를 구하는 것이 있으며, 이외에 文獻의 言語를 考證하는 것과 고대 사회를 고찰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

衛生部 中醫司中醫古籍整理出版辦公室에서 1984년 7월 7일에 제출한 《中醫古籍校注通則》에서 訓詁와 註釋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범위와 요구를 내놓았으니, 氣功古籍을 정리하는 데에도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래에 서술한다.<sup>37)</sup>

① 訓詁

가. 범위

- ㄱ. 字音에 대한 注 : 어려운 글자, 僻字, 서로 다르게 읽는 글자는 모두 音에 대한 注를 달아야 한다.
- ㄴ. 通假字에 대한 해석 : 서로 통하거나 假借할 수 있는 글자에 대한 注를 달아야 한다.
- ㄷ. 正字形 : 異體字, 古體字, 訛誤字에 대해서는 원문을 고치지 않고 注를 달아서 설명하여야 한다. 訛誤字가 가령 문리를 해석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반드시 訂正을 하여야 한다.
- ㄹ. 술어에 대한 해석 : 고유명사술어 중에서 해석이 난해하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어려운 뜻에 대해서는 注를 덧붙여서 설명하여야 한다.
- ㅁ. 출처를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 ㅂ. 구문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 요구사항

- ㄱ. 訓詁에서는 해석한 글자나 글자의 음과 의미,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대 訓詁專門書籍을 및 고찰의 거하여야 한다.
- ㄴ. 訓詁를 할 때에는 반드시 訓詁述語를 정확하게 응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文理와 醫理의 統一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 ㄷ. 音에 대한 注를 덧붙일 경우에는 直音法<sup>38)</sup>을 채용하여야 하며, 한어병음에 동을 한자를 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ㄹ. 글자의 형태를 이용하여 뜻을 구하거나, 글자의 音을 이용하여 뜻을 구하거나 本義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혼고할 수 있다.
- ㅁ. 通假<sup>39)</sup>字를 설명할 경우에는 먼저 假字를 열거하고, 뒤에 本字를 열거하며 반드시 注를 달아서 설명하여야 한다.
- ㅂ. 혼고에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다과에 상관이 없이 정확, 간단, 정당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것을 피해야 한다.

② 註釋

가. 범위

- ㄱ. 의학의 이치가 난해하고, 함축된 의미가 이해하기 힘든 것.
- ㄴ. 각각의 서적마다 서로 다르고, 어느 한가지를 따르기 힘든 경우.
- ㄷ.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定論하기 힘

37) 中國衛生部 中醫司中醫古籍整理出版辦公室 : 前揭書

38)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 前揭書, p.3098 ; 直音法 - '反切'의 발명 이전에 한자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중국 전통의 음표기방법이다.

39) 上揭書, p.2334 ; 通假 - 漢字의 通用과 假字

- 든 경우.
- 리. 전문 술어 혹은 전문적인 언어가 비교적 난해한 것이나 古地名같은 경우.
- 나. 요구사항
- ㄱ. 필수적으로 현대어 위주로 해석을 하여야 하며, 原文의 本意를 천명하여야 하고, 또한 간단하게 요약을 하여야 하며,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써야 한다. 그리고 논증이 정확하고, 인용한 문구는 간결하여야 하며, 절대로 자료를 방대하게 나열하는 것을 피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뜻한 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ㄴ. 各家의 實錄을 참고를 하는데 있어서 兪고학적으로 結合을 하되 내용이 서로 일치되어 前人들의 성과물을 흡수하고, 여기에 새로운 견해를 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설이 分分하거나 또한 각각 精義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여 서로 병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서로 兪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編者가 자기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다.

## IV. 結論

1. 氣功은 사람이 대자연과 싸워온 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완성시켜온 예방, 치료 및 보건강화와 장수를 목적으로 한 심신수련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바로 氣를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공에 관하여 기술해 놓은 서적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醫學書籍, 養生書籍, 불교, 도교서적, 인물의 전기, 문인학자의 수필, 詩, 經, 史, 子 集中에 내재되어 있다.
2. 氣功문헌 연구는 고대의 氣功문헌의 발굴, 정리, 종합분석을 통하여 고대의 자료를 현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氣功學術의 계승, 발전하는 역할을 한다. 기공문헌의 연구범위에는 기공 고적의 정리연구, 기공방법의 연구, 기공 역사에 대한 연구, 기공참고서적의 편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공문헌을 연구, 정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문에 속하는 것으로 기공문헌학이라고 한다. 기공문헌학은 또한 네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포괄하는데 ; 目錄學, 板本學, 校勘學, 訓詁學이 이것이다.
4. 목록학은 고서의 목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목록에는 정부에서 작성한 官修目錄과, 개인이 私적으로 편찬한 목록과, 각대의 역사에 수록되어 보존된 史志目錄과, 版本에 대한 목록, 專門科目 目錄이 있다.
5. 氣功 고적에서 판본의 연구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고적의 부단한 翻刻으로 인하여 동일 고적에서도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字句에서 차이점이 있고, 권수가 서로 다른 판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본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고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校勘學은 校讎學이라고도 하는데 校讎란 교정을 말하는 것으로 기공고적은 면면히 오랜 세월을 전해져 내려오면서 잘못 전해지는 것을 면하기 힘들는데 특별히 손으로 판각을 하는 과정 중에 종종 글

- 을 빼먹는다든지 글자를 잘못 각인 한다든지 혹은 없는 문장이나 구절을 덧붙인다든지 잘못하여 功法의 일부를 삭제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공공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판본들을 가지고 교정을 하여야 한다.
7. 訓詁라는 의미는 현대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解釋의 별칭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訓詁라는 것은 古語를 해석하는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古籍을 통하여 전대의 功法을 이해하고 터득하여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통용되는 언어로 다시 해석되어야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훈고학 또한 문헌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 金秉雲 외 : 肝系內科學, 韓醫學研究院, 1989, p.493.
  9. 洪丕謨編 : 道藏氣功要集 上·下, 上海, 上海書店
  10. 張志哲 主編 : 道教文化辭典, 中國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4.
  11. 馬濟人 主編 : 實用中國氣功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出版發行, 1992.
  12. 宋天彬 劉元亮 主編 : 中國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3. 金學主譯解 : 新完譯 老子, 明文堂, 1996.
  14. 魏伯陽原著 朱元育闡幽 李允熙譯註 : 參同契闡幽, 여강출판사, 1994.
  15. 김기옥 : 氣功外氣療法の 항 스트레스 효과 연구,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Vol.2 No.2, 1994.

## V. 參考文獻

1. 유아사 야스오(湯淺泰雄)著 손병규譯 : 氣와 인간과학, 서울, 麗江出版社, 1992.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3. 이세열 解譯 : 漢書 예문지; 서울 자유문고, 1995.
4. 中國衛生部 中醫司古籍整理出版公室 : 《中醫古籍校注通則》, 1984.
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 中韓辭典, 1995.
6. 呂光榮 主編 :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7. 임후성著 임준규譯 : 中國氣功, 보건신문사, 1987.